

국제연대에서 지역사회 운동까지

1980년대부터 미국 한인사회의 풀뿌리 운동과 함께 한 경험

서혁교 _미주동포전국협회 회장

우리 가족은 내가 열한 살 때인 197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 욕시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나는 부모님을 통해 1970년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두운 격동의 시기에 대해 전해 들곤 했다(아버지는 한국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셨고, 미국 이민 후 독립적인 한국 신문을 출간하셨다).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인권 유린, 노동권 탄압 등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의 이런 상황이 내 삶에 실질적·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1980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평화로운 민주화 시위가 북한군을 대응하는 정규 업무에서 불려온 군인들의 총과 무력행사로 진압당하며 다수의 죽음을 가져온 광주항쟁/학살(5·18광주민주화운동)은 내 인생에도 전환점을 가져왔다. 당시 나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다양한 포럼과 국제 연대 행사에 참석하며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격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팔레스타인 문제 등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운동, 투쟁에 대해 눈을 뜨고 있었다.

광주 학살에 대한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소식을 들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활동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한국 학생들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내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광주학살에 대한 탄원서를 써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 관심은 한국을 향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코리아의 역사와 분단, 시사에 대해 공부할수록 코리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국제 문제와 국제 연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의 최전선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한인 동료들을 알게 되어 이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운동 및 풀뿌리조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재미한국청년연합(Young Koreans United: YKU)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나는 1984년 재미한국청년연합(재미한청련)이라는 새로운 전국적인 조직의 탄생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북미 지역



〈사진 1〉 백기완 선생님과 함께 한 재미한청련 대회(1988년)

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인 1세대 한인들이 시민활동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1.5세대와 유학생들이 이러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시도였다.

재미한청련은 광주 출신의 한국 사회활동가이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 씨의 발상에서 시작되어 그의 지도하에서 움직였고, 한인 1세대 부모님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이른바 ‘한인 1.5세대’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많은 한인 1.5세대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었지만, 나처럼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한국 문화를 계승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재미한청련은 한국의 역사, 정치, 국제관계, 문화, 시사, 디아스포라(diaspora) 문제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뉴욕,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덴버, 댈러스, 토론토 등 북미의 주요 한인 지역사회에 지부를 설립하며 규모와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했다. 대도시 지역(로스앤젤레스, 뉴욕시, 시카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직, 운영하고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커뮤니티 센터도 설립했다. 그리고 나는 재미한청련에서 동료 활동가/회원이자 미래의 배우자인 심영주 씨를 만나기도 했다.

재미한청련은 한국의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 종식, 한국 내 노동권 보장, 한국 민속문화의 부흥(풍물, 운동노래, 민중 예술) 및 지역 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활동가 조직이 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다른 한인 활동가 단체도 있었지만 20년이 넘도록 재미한청련은 가장 크고 많은 활동을 추진하는 독보적인 단체였고, 유럽과 호주의 협력 단체들과 함께 '해외한청련(Overseas YKU)'을 설립하여 여러 디아스포라 사회에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라는 유산을 남기기도 했다.

2. 국제 연대 활동

재미한청련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활동은 국제 연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시 북미의 주류 언론과 학계



〈사진 2〉 유엔 앞 한반도 평화 단식 시위(1991년)

는 한국의 민주화나 시민운동을 다루지 않아, 재미한청년이 이를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국제연대 행사에서 한국인을 대표하여 연설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미국 및 국제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한국의 사회활동가와 연사를 초청하여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포럼을 한영 통역과 함께 진행하고, 주 미국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유엔본부, 미 국무부, 백악관, 미 국회의사당 등의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정책과 연관된 조직적인 캠페인과 활동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단체와 풀뿌리단체,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한국지원네트워크(Korea Support Network)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한반도 내 상황이 심각해지자 재미한청련도 1991년 유엔본부 앞에서 22일 간의 단체 단식 투쟁을 조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의 종식을 촉구했다. 나도 역시 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당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별도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자 했었고, 재미한청련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을 가져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했다. 이런 점에서 재미한청련은 한국과 북한의 정책과 무관한 이상과 열망을 위해 싸웠다고 할 수 있다.

재미한청련은 또한 1986년 인터넷 등장 이전에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한국 내 시민사회 운동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 한인들이 설립한 첫 비영리기관인 워싱턴 DC의 한겨레 미주홍보원(Korea Information and Resource Center: KIRC)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겨레미주홍보원에서 인원모집을 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나는 자진해서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사하고 홍보원에 합류했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이슈와 사회운동을 다루는 영문 시사잡지인 『코리아 리포트(Korea Report)』의 편집자가 되었다. 이 잡지는 미국 의회, 언론, 싱크 탱크, 학계 및 국제 사회에 배포되었는데, 9년간 인쇄물로 출간하다가 블로그 형식으로 바꾸어 14년간 운영되었다.

한겨레 미주홍보원은 엘살바도르 사람들과의 연대위원회(CISPES)와 과테말라 연대 네트워크(NISGUA)의 미주 사무소가 있는 워싱턴 DC 시내의 건물에 위치하여, 다른 국제연대단체, 평화단체와 비영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며 각자의 역사, 문화 및 투쟁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

이 국제 연대 행사에서 주요 화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국제평화대행진(International Peace March)

재미한청련의 국제연대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업적은 1989년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International Peace March in Korea)’이다.

이 행진은 원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분단을 종식시키려는 열망을 상징하기 위해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행진과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행진을 동시에 진행하여 판문점과 DMZ 경계에서 만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시민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독재정권에 강한 탄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행진을 개최하지 못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북한 당국이 (많은 주저 끝에) 재미한청련과 재미한청련 산하 국제위원회가 단독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진을 조직하고 실행하도록 허가해 주어 국제평화대행진을 북한에서 개최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현수막, 악기, 자료, 출판물, 사무용품 및 도구까지 모두 챙겨갔다.

이때 같은 시기에 한국 대학생 임수경 씨가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유럽을 거쳐 북한에 방문했다.

재미한청련은 유엔군사령부로 한국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16개국을 포



〈사진 3〉 백두산에서 출발하는 국제평화대행진(1989년)

함한 30여 개국에서 평화운동가, 학자, 종교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국제대표단과 함께 북한 백두산에서 비무장지대를 접경한 판문점 북쪽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했다(동시에 뉴욕시에서 워싱턴 DC까지 별도의 행진을 진행하여 한국 내 미국 전술핵무기 철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10만 건의 청원서를 미 의회에 전달했다).

임수경 씨는 평양에서 저희 행진에 합류하여 판문점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끌어들였다. (아마 북한 당국의 최초 군중 통제 경험이었을 것이다.) 임수경 씨는 판문점에 도착해서 유엔군사령부(즉, 판문점 남쪽을 관장하는 미군)에 비무장지대를 통해 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거부되자 임수경 씨와 저희 대표단은 북한 내에서의 최초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측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과감하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한국전쟁 이래 평범한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의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행동은 코리아에 존재하는 가혹한 물리적, 심리적 분단의 장벽을 상징적으로 허물었다. 예상대로 임수경 씨는 북한으로의 무허가 방문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임수경 씨는 이후 조기 석방되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나와 내 아내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이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해외동포 대표단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난 역경을 넘어 변화와 진보를 향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국정부가 2017년에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었음.)

제 아내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산가족(삼촌, 이모, 사촌)을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분단으로 인해 한국전쟁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는 이산가족이 아직도 많이 있다.

임수경 씨의 역사적 위업 이후, 한국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북한을 적 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향하게 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는 많은 민간인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었다.

4. 새로운 여정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미국 내 한인 운동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윤한봉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재미한청련은 지역사회 중심의 행동주의에 초점을 맞추며 산하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이민자 권리 옹호와 미등록 거주자의 시민권 취득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재미한청련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재미한청련에 소속했던 활동가 중 일부는 이후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 관련 활동 통해 계속되는 북미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외관계 정상화 및 상호 안보 보장 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나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직후에 결성된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의 일원이 되었다. 이 협회는 재미한인의 정치적 권한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 운동, 후보자 정책 포럼, 집회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미 의회 내 옹호(advocacy)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미주동포전국협회는 북한(당시 유엔주재 북한대사), 남한(구 국회의원) 대표를 초청하여 역사상 최초의 한미 3자 회담인 ‘한반도 평화안보 포럼(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Forum)’을 개최했다. 남북한 대표들과 미국 상하원 의원이 미국 의회 안의 회의실에서 화해와 국제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술하고 열린 대화와 의견 교환을 위해 모였고,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다.



〈사진 4〉 백악관 앞 한반도 평화 시위 (2017년)

또한 미주동포전국협회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2년에 유엔 본부 맞은편에서 6자회담 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와 중재자 역할로 초청한 몽골과 독일(유럽 연합)의 정부인사 및 비영리단체 대표들과 함께 ‘동북아 평화 협력에 관한 뉴욕 회의(New York Conference on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현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연설하고, 북한 외무성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행사였다.

현재 내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미주동포전국협회는 오늘날까지도 ‘코리아 콜라보레이션(Korea Collaboratio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와 같은 새로운

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 의회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옹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협회의 워싱턴 DC 사무소(William Cho Peace Center)는 진보적인 지역 한인 단체의 포럼, 모임 및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그 외 활동

미주 한인활동가 단체 및 개별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는 일본군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 공론화 활동(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 시위 및 한국 피해자/생존자 초청 행사 개최), 미국 여러 도시에 소녀상 건립 추진 활동(가장 최근에는 버지니아 애난테일의 코리아타운에 건립), 한국 촛불 시위 지지 집회 활동(2016-2017),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활동(2014년부터 매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및 기타 도시에서 행사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년간의 국제 연대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 한인활동가들은 범위를 넓혀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비한인 사회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이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라틴계 지역사회와,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에 대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협력했다.

미주 한인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성소수자 옹호활동(LGBTQ advocacy)이다. 우리 가족은 성소수자 권리를 원칙적으로는 늘 지

지했지만, 저희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이후로 우리에게 더 가깝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저와 제 아내는 성소수자 자녀를 둔 다른 한인 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에는 함께 ‘미주한인 무지개 부모 모임(Korean American Rainbow Parents: KARP)’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된 단체이고, 한국의 성소수자부모모임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부모들 및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단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에는 최초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뉴욕에서 미주 한인 성소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부모 및 지지자)들의 첫 전국 대회를 열었다.

6. 앞으로의 행보

미주 한인들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을 해왔다.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 미국 내 한국 학생과 지도자들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로비를 벌였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들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힘겨운 노동을 통해 번 적은 수입의 일부를 떼어 모아 국외의 독립 운동과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후원했다.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완화되자 더 많은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미국 내 민권 운동에 영감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미국

시민권과 여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는 남북한 정부 주도의 드물고 산발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기 전에도 직접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났다.

1980년대 이후 미주 한인들의 행동주의는 한국의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화해를 향한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북·미 간의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대치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 내 한국 문화 홍보와 부흥, 한인 사회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지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 소수자 권리 및 소외된 지역 사회 지지, 국제 연대, 인종 및 지역 사회 간 협력 등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및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한국에서 태어난 입양아동들이 한인 단체 및 미국 기관에서 자원 봉사자 또는 유급 정규직원으로 1.5세대와 합류하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활동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앞에 그 어떤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도, 미래의 미주 한인 활동가들은 독창성, 역동성, 영향력을 가지고 당당히 직면할 것이다.

~~202~~